

카를로스 모이타의 심플하고 간결한 패션과 데스크의 풍경이 잘 어울린다



디자인에서부터 외화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갤러리 내부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려는 그의 애정과 열정이 반영된 신랄적인 작품들

서야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연다. 고급 갤러리들이 밀집한 센 강 의 좌안, 생 제르망 지역에서 가장 젊고 촉망받는 갤러리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카를로스 모이타(Carlos Moita)는 이런 면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다. 20대 후반에 과감히 디자인 전문 갤러리인 D-ROOM을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디자인 전문 갤러리라 할 만큼 갤러리가 밀집해 있는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갤러리들이 많은 생 제르망 지역에서 이걸 아주 특별한 일이다. 내실과 합리성,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치열한 갤러리의 세계를 달려가는 파리의 젊은 갤러리스트. 30대의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 눈을 반짝이는 31세의 카를로스를 <바자>에 초대했다.

PASSION 열정을 꽃피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현실과 조화시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포르투갈 인의 피를 이어받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 덕분인지 카를로스 모이타는 언제 만나도 열정이 가득하다. 7살 때 처음으로 나폴레옹 제정 시대에 만들어진 넵툰 조각상에 꽃피면서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주말마다 벼룩시장에 드나들며 작품을 사고팔면서 미술시장의 메커니즘을 몸과 감각으로 익히는 데는 이 미술에 대한 열정이 한몫을 했을 터. 그러나 그의 열정이 그저 미술에 대한 사랑으로 국한되었다면 그는 컬렉터나 아마추어에 머물렀을 것이다. 소르본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감정사를 배출하는 전문 사립 학교에서 전문적인 시각을 접하면서 비로소 그의 열정은 현실과 조화되기 시작했다. 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12개가 넘는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사실 미술계 인턴은 걸로로는 화려해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노동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다. 작품을 옮기고 고객에게 편지를 보내는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어깨너머로 눈치껏 업무를 배워야 하기 때문. 그러나 미술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카를로스에게는 이 인턴 경험이 다시 없는 기회였다고. 그가 졸업 후 바로 파리의 대형 갤러리 중 하나인 제라 오르티스(Gerard ORTIZ) 갤러리에서 1년간 디렉터를 맡으면서 실내 인테리어와 작품을 조화시켜 고객의 집을 재단장해주는 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다양한 인턴 경험 덕택이었다.

BALANCE OF REALITY 밖에서 보는 갤러리스트의 삶은 전시 오픈 파티나 아티스트와의 만남 등 일견 흥미진진하고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정작 갤러리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장의 흐름과 돈에 대한 감각, 고객을 관리와 세일즈 마인드에서 비롯된다.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며 미술에 대한 꿈과 열정을 팔지만 두 발을 현실에 단단히 디로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 집에 있어서 카를로스는 어느 갤러리스트보다 영특하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구매할 때도 시장에서의 가치를 신중하게 따지고 잔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풍피두 센터에서 열리는

인디애나 존스와 피카소 사이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진중하게 일에 매진하라. 파리 갤러리 업계에 젊은 열기를 불어넣는 인물, 카를로스 모이타의 에너지틱한 라이프스타일. 글/이지은(프리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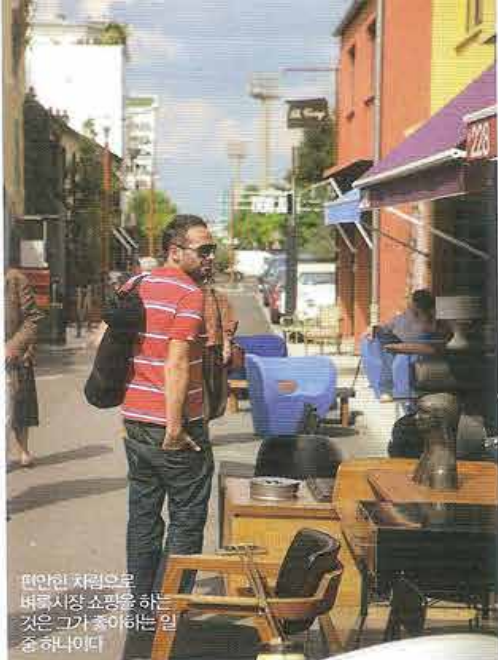
파리에 얼마나 많은 미술 갤러리가 있는지 헤아려보는 일은 무의미하다. 서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파리이지만 갤러리 개수만은 네 배 이상 많다. 파리의 갤러리들은 여러모로 한국의 갤러리들과는 다르다. 우선 규모가 작다. 대기업들이 갤러리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네 실정과는 달리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 오랫동안 착실하게 갤러리를 키워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같은 파리 안의 갤러리뿐 아니라 뉴욕, 런던, 베를린 등의 갤러리들이 모두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허울 좋은 외관보다 몸집을 줄여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가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와 이해를 넓혀야 좋은 갤러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건 갤러리를 연다는 것은 리스크가 큰 일이기도 하다. 한번 실패하면 그렇잖아도 좁은 미술계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갤러리스트들은 30대 중반이 되어



작지만 내실 있는 그의 갤러리. 컬렉션한 소품들이 그의 포르투갈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듯하다



모던한 60~70년대 빈티지 스타일의 컬렉션들



편안한 자원으로 베희시장 소풍을 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이다

오프닝에서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유창하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려낸 다음날 새벽에도 운동화를 신고 베희시장에 나가 작품 사냥하는 남자가 바로 그가.

WORKING MAN 그는 좋은 갤러리스트와 그렇지 않은 갤러리스트의 차이는 얼마나 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시장에서 작품을 얼마만큼 인정받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아무도 거들지 않던 장 푸르베나 샤를로트 페리앙의 작품이 지금 억대를 호가하는데에는 그들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소개하면서 그 가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전문 갤러리스트들의 노력이 있었다. 카를로스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갤러리를 단지 사업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객들은 그의 갤러리 통해 피에르 샤프(Pierre Chapo)나 스카파(Scarpa), 마르티누치(Martinuzzi) 같은 무라노 유리 장인들의 작품을 만난다. 아직은 이름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곧 미술계의 스타가 될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기쁨이라고. 그가 업무 파트너인 갤러리스트 티에리 리브라티와 함께 '20세기 디자인 페어'를 구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 45개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디자인 페어에서는 평소 문턱 높아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던 갤러리들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각 갤러리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의 페어는 12월 24일에 열리는데 작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될 예정이라며 뜻 들뜬 모습이었다.

ARTIST OF ART 그는 20세기 초반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아르데코 스타일과 모더니즘 작품에 매력을 느끼는 컬렉터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조각과 회화에도 관심이 많아 브라크나 피카소, 고갱, 브레스카(Breska)를 좋아한다. 특히 피카소 미술관의 피카소 작품들, 퐁피두 센터에 전시된 브레스카의 작품, 볼르뉴 박물관의 리에프치츠(Liepchtiz)의 작품 앞에서는 아무리 길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다.

MANIST 미술계통에서 남들보다 일찍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그가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남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타로 카드를 배운 것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만의 수단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열정을 다스릴 줄 알고 타인을 보듬어 안을 줄 아는 캐릭터 덕분 그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마일 보이'이다.

BOOK 그는 미술적인 식견을 높이는 데 책만 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는 큐비즘과 다다이즘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 그칩대 머리에 놓아두고 언제나 들여다보면서 위안을 얻는 책도 있는데, 냉철하

고 지성적이지만 동시에 유머러스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답게 파올로 코엘로의 <연금술사>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았다.

MUSIQUE 직업의 영역을 떠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젊은 파리쟁이 중 한 명이다. 특히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할만큼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제임스 블런트(James Blunt) 같은 젊은 뮤지션들을 좋아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인 포르투갈의 문화에 대해서도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리자(Mariza)와 아말리아 로드리게스(Amalia Rodriguez)의 파도(Fado)를 듣고 있으면 목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한다. 직접 파도를 배워 부르기도 하는 그는 그래서인지 냉랭한 파리쟁이과는 다른 인간적인 향기를 풍긴다.

FILM 취미로 다다이즘을 공부하는 갤러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 언뜻 갤러리스트라고 하면 예술영화를 선호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카를로스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인디애나 존스>와 <스타 워즈> 시리즈다. 젊고 역동적이며 재미난 것을 선호하는 그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필름 리스트. 또 그는 그 세대의 프랑스 젊은이답게 일본 만화영화를 좋아하는데, 아트를 닮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스트로 보이'로 통한다.

FASHION 그의 패션은 때와 장소, 기분에 따라 철저하게 달라진다. 베희사유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된 날은 스모킹 정장으로 격식을 갖추고, 베희시장에 갈 때는 진에 티셔츠나 반바지를 즐기며 때로는 과감한 액세서리로 기분을 내기도 한다. 그런 그가 특별히 아껴 절대 몸에서 떼지 않는 액세서리는 조각가인 미구엘 오르티즈 베로칼(Miguel Ortiz Berrocal)의 작품인 마이크로 다비드(Micro David) 목걸이와 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카리메로 캐릭터 목걸이. 어렸을 때 그의 별명이 카리메로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는 생각에 특별히 아끼는 아이템이다. 마이크로 다비드 목걸이는 몸통이 죄다 분리되면서 안에서 반지가 나오는 아주 특이한 액세서리.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로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디자이너인 윤성보 씨의 브랜드 바론 와이와 디올 오므, 볼 엔조, 빌 토르나드를 꼽았다.

CITY 그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는 전형적인 시티 마니아다. 살아가는 자유, 삶의 예술이 있는 파리를 좋아한다. 특히 베희시장과 마레의 브레타뉴 거리가 주요 활동 지역. 편안함을 느끼고자 할 때는 리스본을 찾아간다. 리스본에서 휴가를 즐기고 파리로 돌아올 때는 니스에 들러 한껏 태양을 즐기는 여유를 부리기도 하는데, 그에게 있어 니스는 파리로 돌아오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관문 같은 곳이라고. 간혹 인생이 지루해지면 자극이 많은 런던으로 떠나고 에너지가 방전되었다 싶으면 한껏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뉴욕의 카페 지탄에서 하루를 보낸다. **13** 에디터/ 정아진